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올해 말 착공...2021년부터 가동

협약식 이어 사업계획 마련·합작법인 설립·인프라 구축 등 곧바로 추진

현대자동차와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타결되면서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완성차 공장 건립이 본격화된다.
 광주시는 31일 합작법인 2대 주주인 현대차(1대 주주 광주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정부로부터 사업 타당성을 심사받을 예정이다.

현대차와의 협약에 따른 임금 수준, 적정 시간, 생산 규모, 생산 지속성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게 관건이다.
 근로자 임금은 국내 완성차 업체 5곳 연평균 임금(9천213만원)의 절반 수준인 3천500만원(초기 임금)에 맞춘다.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생산 규모는 연간 10만대 수준이다.
 임금 수준 등과 직접 연계돼 현대차와

지역 노동계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임금·단체협상 유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숙제다.
 협약에는 35만대 생산까지 임단협을 유예하고 임단협 기간과 방식 등은 노사 협의를 통해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경제성이 있는 1천cc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를 생산하면서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고 향후에 전환

경 차로 전환하는 것도 과제다.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투자자 모집에도 곧바로 나선다.
 법인 자본금 7천억원 가운데 자기자본금(2천800억원) 21%(590억원)는 광주시가, 19%(530억원)는 현대차가 각각 부담한다. 나머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예정이다.
 법인 설립이 신속히 진행되면 올해 말에는 완성차 공장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 건립 기간은 2년 정도이며 2021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지원사업인 행복임대 주택, 노사 동반성장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건립, 진입도로 개설 등 3천억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도 곧바로 추진한다.
 국비로 관련 예산 2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윤규진 기자 jin2001@

‘협약 체결 포기’...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사실상 무산

호반 컨소시엄 도시공사에 포기 공문...광주시 선택 주목

13년 만에 재개하려던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우선협상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다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반 컨소시엄이 전남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에 ‘실시협약 체결 포기’ 공문을 보냈다.
 호반 컨소시엄 측은 낮은 사업성으로 투자 위험이 큰 사업으로 보고 있으나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요구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레지던스 호텔 건립 등에 따른 특혜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불거지자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광주도시공사와 호반 측은 어등산 개발을 위한 실시협약을 이달 말까지 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협상 결과 쟁점이 된 레지던스 호텔의 운영 주체 등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측은 1천500여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 운영 주체를 두고 전문위탁운영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주택 임대사업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는 레지던스 호텔 조성에 대해서는 숙박업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협상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호반 측은 현재 계획대로 하더라도 위험이 큰 사업인데 공공성만을 요구하면 수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지던스 호텔 운영을 위한 전문위탁운영사 대신에 분양한 뒤에는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호반 측이 투자 위험을 내세워 ‘실시협약 체결 포기’ 공문을 보냄에 따라 사업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알려졌다.
 광주시가 호반의 입장을 받아들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을 요구할지, 아니면 기존 방침에서 물러서 재협상을 검토할지 주목된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어등산 41만6천㎡ 부지에 휴양문화시설(인공호수, 워터파크, 아트센터), 숙박시설(특급호텔, 콘도, 레지던스 호텔), 운동오락시설(골프연습장, 체육시설), 창업지원센터,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찾고자 협의를 벌였지만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도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고훈석 기자 ghs@

광주·전남, 설 연휴 홍역 공동 대응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박중수)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원장 조영관)이 설 연휴 기간 동안 홍역 바이러스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4개 지역 호남권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8월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MOU를 체결한 후 감염병 관리에 적극 나서왔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인 2-6일 홍역 의심 환자 발생 시 관할 지역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에게 연락 후 의심 검체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 검사를 진행한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발진성 질환이다. 호흡기분비물 등의 공기 매개로 전파된다.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전염력이 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므로 환자는 격리치료를 해야 하고, 접촉자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MMR백신 2회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병의원을 꼭 방문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접종을 서둘러야 하며, 마스크, 손수건, 옷 소매 등을 활용하는 기침예절과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의 기본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정승현 기자 jsh9668@



광주시-현대차, 자동차 공장 신설법인 투자 합의
 윤중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문재인 대통령,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왼쪽부터)가 31일 오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광역시-현대자동차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행사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전남도, 설 맞아 귀농어·귀촌 유치 나서

전라남도가 2월 1일부터 6일까지 도와 시군, 귀농어귀촌인연합회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귀농어·귀촌 지원 정책 등을 집중 홍보한다. 광주 송정역과 전남지역 주요 터미널·역 등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향우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동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남으로 귀농어·귀촌한 사람은 4만 1천25명이다. 2013년 이후 계속해서 매년 4만여 명이 전남으로 귀농어·귀촌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전남이 고향인 출향향우다. 희망을 갖고 고향으로 귀농어·귀촌해 인생 2막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한전그룹사, 설 앞두고 복지단체에 5억원 기부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복지단체에 5억원가량을 기부했다.
 한국전력과 전국전력노조는 3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광주와 전남의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1억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금 전달식에 이어 나주시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내 복지시설 5곳에 공기정정기와 절전형 히터 등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같은 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051600],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자력 공기업 5개사는 비상공동체연탄은행복지재단에 성금 2억원을 전달했다.
 복지재단은 성금으로 연탄 25만장을 구매해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오승택 기자 ost6002@

기사제보 227-0000

2019 謹賀新年

군민에게 신뢰받고,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작은 소리에 도 귀 기울이는
고흥군의의회
 GOHEUNG COUNTY COUNCIL